사 내 한
CN 09-37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9.18 (통권266호)

경제 이슈
- 세계 및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 전망
- 국내 취업자 소폭 상승

경영 노트
- 3M의 협업 체계 구축

사회 트렌드
- 프로보노(pro bono)
- 페이스북의 '옛사랑 찾기'

차이나 리포트
- 다롄 하계 다보스포럼의 주요 내용
- 8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 해설

저널 브리프
- 기후변화를 살펴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라

洗心錄
- 인간 존중 리더십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세계 및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 전망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17일)*에 따르면 세계 및 미국 경제는 주요 기관의 예상보다는 양호한 경제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세계** :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에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IMF 전망치인 2009년 -1.4%, 2010년 2.5%를 상회
- **미국** : 2009년에 -2.4%, 2010년에 4.0%을 IMF 전망치에 비해 2009년 0.2%p, 2010년 3.2%p 상향 조정
- **유럽** : 2009년에 -3.7%, 2010년에 2.3%로 IMF의 2009년 -4.8%, 2010년 -0.3%에 비해 양호한 전망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기관 자본 확충 증대로 인한 영향이 세계 경기의 양호한 전망의 배경이라고 주장**

□ 국내 취업자 소폭 상승

■ **통계청(16일)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로 전환되어 고용시장은 미약한 회복 조짐을 보임**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증가 등으로 2009년 7월에 전년동월대비 7.6만 명 감소에서 8월에 2,362만 명으로 3,000명 증가로 전환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는 2009년 8월에 90.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만(18.5%) 증가. 실업률은 8월에 3.8%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으나 7월의 3.8%와는 동일
- **쉬었음 및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8월에 145.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8만 명(8.0%) 증가. '구직단념자'는 17.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만 명(54.85%) 증가

■ **한편, 취업자는 연령계층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증가(32.8만 명)하였고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2만 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6만 명)에서 증가**

---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1981년에 설립되어 국제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

□ 3M의 협업 체계 구축*

■ 소비자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협업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이에 포스트잇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유명한 3M은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는 R&D 체제를 구축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에는 치과용 물질 연구팀과 나노 물질 연구팀 간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로 나노 입자를 포함한 미용 치과 물질 Filtek Supreme Plus를 개발할 수 있었음

■ 3M의 협업 체계는 네트워크 지원, 타 분야의 연구 장려, 기금의 조성, 대면(對面)의 중시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음

< 3M의 협업 체계 >

	내 용
협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	직원 스스로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할 수 있는 Web 기반의 'R&D Workcenter'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서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대면(對面) 행사인 '테크포럼(TechForum)'을 개최
타 분야 연구 장려	자기 부서 및 업무 외의 기타 관심 분야에 15%의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여 다른 부서 및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장려
협업 기금 조성	각 부서의 핵심 프로젝트 및 아이디어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Genesis Grants'라는 기금을 마련하여 자기 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
대면(對面) 활동 지원	대면(對面) 행사인 테크포럼뿐 아니라, 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위치한 부서의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 서비스' 제공

*"How 3M Encourages Collaboration"(Business Week, 2009.9.2) 참조

□ 프로보노(pro bono)

■ **'프로보노'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봉사 활동하는 것으로서, '재능 기부' 또는 '능력 나눔'으로도 불리어짐**

- 라틴어 'pro bono publico(공익을 위하여)'의 줄임말로서, 로마시대 지도층의 공익을 위한 헌신과 기부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말
- 당초엔 주로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의미했으나 요즘엔 의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임

■ **프로보노 활동이 의미를 갖는 것은 물품 기부나 단순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임**

- 미국 변호사들은 연 5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변호사 50인 이상 로펌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 60~100시간을 공익활동에 써야 함(우리나라도 20시간 공익활동 의무)
- 미국 IBM은 '기업 봉사단'을 조직, 베트남, 필리핀, 탄자니아 등 IT 기술이 낙후한 12개국의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해 IT 컨설팅을 무료제공

□ 페이스북의 '옛사랑 찾기'*

■ **미국의 인맥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해 옛사랑을 찾아나서는 중년 남녀가 늘고 있음**

- 10대와 20대가 주로 이용하던 페이스북을 30~50대도 찾게되면서 새로 생긴 현상

■ **이에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retro) 연애 대상(sexual)을 찾는 것을 뜻하는 retro-sexual이란 단어까지 생겼다'고 함(美 시사주간지 타임 9월21일자 보도)**

- 옛 애인과 연락하는 중년이 늘어나면서, 옛사랑을 만난 것을 후회하는 regretrosextual(regret+ retro+ sexual), 옛사랑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fretrosexual(fear+ retro+ sexual)이라는 조어까지 나옴

---

*"페이스북, 옛사랑 찾기 신드롬"(조선일보, 2009.9.15) 참조

□ 다롄 하계 다보스포럼의 주요 내용

■ **세계경제포럼(WEF)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요녕성 다롄시에서 제3회 하계다보스포럼을 개최함**

- 하계다보스포럼은 '다보스포럼'의 창시자인 슈바프(Klaus Shwab)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제안에 따라 2007년부터 개최
  - 올해까지 3회째 개최되었으며, 개최지는 중국 다롄시(2회는 톈진), 주요 의제는 '전세계 중소기업의 성공경험 공유'임
  - 금번 포럼에는 전세계 86개 국, 1,400여 명의 정계, 재계, 학계 대표들이 참석

■ **제3회 하계다보스포럼은 '성장 재도약'을 주제로 위기이후 시대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해 토론**

- 금번 하계다보스포럼은 5가지 주제를 의제로 선정
  - '디레버리징' 시대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 '녹색경제(green economy)' 속의 사업기회 모색
  - '아시아 발전 모델'에 대한 재사고(再思考)
  - 과학기술을 발전과 경제성장 병행
  - 혁신을 통한 사회 수요를 충족

■ **이번 포럼은 세계경제가 당면한 상황과 위기 극복 과정 및 위기이후 시대의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참석자들은 현 시점에서는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 각국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멀지 않은 미래에 고속성장 시대를 다시 맞이할 것으로 기대

□ 8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 해설

■ **8월 들어 중국 경제의 회복 기미가 한층 뚜렷해졌으나, 불안 요인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산업생산** :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함으로써 견조한 상승세를 실현하였으며, 제조업 PMI는 올 들어 최고치(54포인트) 기록

- **투자** :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고정자산투자는 하반기에도 33% 대의 빠른 증가세를 이어감

- **소비** : 8월 소비재판매증가율은 3개월 연속 상승하여 소비가 완만한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수출** :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2%나 감소하여 다시 침체되는 양상

- **인플레 우려** : 상반기에 비해 금융권 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통화량이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증감률 추이 >

구분	지표	상반기	6월	7월	8월
성장	고정자산투자 (%)	33.5	33.6	32.9	33.0
	소비판매 (%)	15.0	15.0	15.2	15.4
	산업생산 (%)	7.0	10.7	10.8	12.3
	PMI (포인트)	-	53.2	53.3	54.0
대외부문	수출 (%)	△21.4	△21.4	△19.4	△22.2
	수입 (%)	△25.4	△13.2	△14.9	△22.7
금융	M2 (%)	28.5	28.5	28.4	28.5
	대출 (조 위안)	7.40	1.53	0.35	0.41
가격지수	CPI (%)	△1.1	△1.7	△1.8	△1.2
	주택가격지수 (%)	-	0.2	1.0	2.0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통계국, 세관
주 : △표시는 마이너스를 의미

□ 기후변화를 살펴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라*

■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가 각종 산업과 비즈니스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올 여름에는 잦은 비와 낮은 기온이 8월초까지 지속되다가 8월 중순이후가 되서야 늦더위로 에어컨 판매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음
- 이처럼 이상 기온과 잦은 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소비패턴 및 주요 농수산품의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

	내 용
농수산업	– **(변화 현황)** 기온 상승으로 인해 지역별 농수산물 생산이 변화함 · 사과, 쌀, 복숭아, 포도의 재배지가 강원도 남부 지역까지 이동한 반면 경남과 전남에서는 사과 과수원이 사라짐 · 냉수성 어종인 명태는 어획량이 떨어진 반면, 온수성 어종인 오징어는 어장이 동해안에서 서해로 확대되고 어획량이 늘어났음 – **(새로운 기회)**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을 비롯, 수입에 의존하던 망고 등 아열대 과일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확대됨
생활용품 및 유통업	– **(변화 현황)** 제품의 계절적 수요에 따라 매출이 증감 · 최근 몇 년간 에어컨, 빙과류 등은 10~30%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보일러 등 난방용품의 매출은 위축됨 · 여름용 의류의 판매기간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데 반해, 봄·가을·겨울용 의류의 비중은 축소됨 – **(새로운 기회)** 후텁지근해지는 기후변화에 맞춰 제습기, 방충제 등의 상품이 인기를 끌 전망임
전통산업	– **(변화 현황)** 온실가스 규제 강화, 빈번한 기상재해로 인해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산업의 위축이 우려됨 – **(새로운 기회)** 친환경 녹색산업, 일부 건설공사는 활황이 예상됨 · 청정에너지, 친환경생산설비,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사업을 비롯, · 홍수 및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강원도서 사과 재배, 북극해로 화물 운송"(매경Economy, 2009.9.9) 참조

□ 인간 존중 리더십

조선시대 거상인 가포(稼圃) 임상옥(1779~1855)은 "財上平女水 人中直似衡(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이라고 했다.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해야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저울대처럼 곧아야 한다는 뜻으로 재물 관리에 대한 경영철학과 인간 존중의 리더십이 반영되어 있다.

『거상 임상옥의 상도경영』에서는 임상옥의 경영 철학을 기업 윤리와 연결시키고 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와 함께 장기적 생존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정직을 기초로 한 신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상옥은 재물에 대한 절제와 균형과 함께 인간에 대한 신용을 중시하고 있다. 절약과 근면이 중요하지만 정직을 바탕으로 한 신용 또한 중요하다는 뜻이다. 윤리 경영을 통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고객이 기업을 신뢰하게 되고 제품을 재구입하는 선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를 고객에 대한 차이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고객을 자신의 제품을 구입해 주는 외부 고객에만 한정 짓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외부 고객뿐 아니라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기업 경영에 있어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 여기서 내부 고객이라 함은 직원뿐 아니라 하청업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다. 외부 고객과 함께 내부 고객과 신용으로 연결될 때 애사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고 이것이 기업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

임상옥의 좌우명처럼 재물은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에 재물을 추구하면 기업이 장기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추구할 때 100년 넘는 기업으로 건재할 수 있다.

"사장의 임금은 사장에게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부사장에게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에드 레이지어(Ed Lazear) : 토너먼트 이론의 주창자